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41, No. 4. August, 2024. 879~890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4.41.4.879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과 도덕적 민감성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정미라[1] · 정 은[2,†]

[1]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4년 6월 29일 접수: 2024년 8월 22일 수정: 2024년 8월 22일 채택)

Influencing of Cybercivility, and Moral sensitivity on Cyberbullying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Mi Ra Jung[1] · Eun Jeong[2,†]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Jeil University*
(Received June 29, 2024; Revised August 22, 2024; Accepted August 22, 202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J도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이버불링 경향성은 사이버시민성(r=−.681, p<.001), 도덕적 민감성(r=−.186, p=.01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요인은 사이버시민성 (β=−0.57, p<.001), 오프라인불링 경험(β=0.16, p=.004), 성별(β=0.11, p=.004)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4%였다(F=4.12, P=.04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사이버불링에 대한 위험성과 올바른 사이버시민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인터넷, 사이버불링, 도덕, 간호, 대학생

Abstract :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cybercivility, moral sensitivity, cyberbullying tendencies of nursing studen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cyberbullying tendencie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172 nursing students of three universities in J city. Cyberbullying tendencie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ybercivility (r=−.681, p<.001) and moral sensitivity (r=−.186, p=.015). Influencing factors on cyberbullying tendencies were cybercivility (β=−0.57, p<.001), off-line bullying experience (β=0.16, p=.004) and gender (β=0.11, p=.004) accounting for 51.4%. Therefore,

†Corresponding author
(E-mail: jwon8045@hanmail.ne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bout the risks of cyberbullying and proper cybercivility.

Keywords : Internet, Cyberbullying, Morals, Nursing, Student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 정보교류, 교육, 상거래 등의 영역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소통과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도우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소통할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반면,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는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와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과 거리 때문에 사회적 규범과 예의를 무시하는 행동, 욕설, 비방, 차별 등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1].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청소년에서 41.6%, 성인은 9.6%를 보였다.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연령이 적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피해경험이 높았으며 연령별로 20대에서 18.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1회에 그친 단발성으로 주로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경험하였다[2]. 사이버폭력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 사이버블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의 뜻하는 블링(bullying)과 합쳐진 단어로 인터넷 상의 집단 괴롭힘을 말한다.

사이버블링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나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스토리, 저격글, 문자 메시지 또는 익명채팅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휴대폰, 컴퓨터, 테블릿 PC와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의도적·지속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블링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과는 다르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블링은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성적 저하, 결석, 불안과 분노, 불면증, 육체적 증상, 그리고 자살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4]. 즉,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왕따 등 집단 따돌림 상황이 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사이버블링 경향성이란 가해자, 지지자, 방관자 집단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개인이 가해자, 지지자, 혹은 방관자의 역할로 사이버블링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5]. 사이버불링 경향성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위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심리정당화, 윤리태도를 포함하여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블링 경향성은 사이버블링 피해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명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이 사이버블링 피해자가 사이버블링 경향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대학생의 사이버블링 경향성은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을 낮추는 결과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7], 사이버블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블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사이버블링 경향성을 낮출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5],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사이버문화의 존중과 책임의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시민성의 함양이 더욱 요구된다.

사이버시민성(cybercivility)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로, 사이버문화의 존중과 책임감을 포괄하는 미덕이나 특성을 의미한다. 건강한 아이디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의사소통하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호와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8]. 특히 의료인들의 사이버시민성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의 태도와 행동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9].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의 제약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이 있어 일부 사람들이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상식선을 넘어 행동하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

는 간호교육에서 사이버시민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10].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둘러싼 특정한 문제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해야 하는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들에게 문제 상황들을 도덕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의 도덕적 민감성의 함양은 필요하다.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은 도덕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도덕적 문제를 감지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스스로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 개념을 의미한다[11]. 윤리적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 민감성은 간호의 전문적 의무와 일치되는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인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직장 내 불링은 대면(face to face bullying)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사이버불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2]. 특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불링 연구에서 메신저, 이메일, 문자 등으로 대화 할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늦게 응답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내가 대화상대로 초대를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는 사이버상의 무시 또는 거부행위로 대면불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13].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직장내 사이버블링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블링 경향성을 파악함이 요구되어 진다.

사이버블링 경향성의 선행연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7]와 사이버 피해경험[6],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14]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블링 경향성에 영향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과 도덕적 민감성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사이버블링 경향성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블링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시민성과 도덕적 민감성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 사이버불링 경향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이버시민성과 도덕적 민감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상자는 J도 3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power 3.1 vers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중간효과크기 .15로 설정하고, 예측요인 13개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산출한 결과 표본수는 162명이었다. 탈락률을 예상하여 17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개를 제외하고 총 172개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사이버시민성

사이버시민성은 De Gagne et al[15]이 건강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고 Hong et al[10]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사이버시민성은 경험과 수용성 25문항, 지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이버시민성 경험과 수용성은 온라인 환경에서 비시민성 행동에 대한 경험과 수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점, ‘매우 자주’ 에서 5점, ‘전혀 없음’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시민성이 높음을 의미하여, De Gagne et al[15]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4이었고, Hong et al[10]연구

에서는 .9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다.

사이버시민성 지식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례한 행동에 대한 지식에 대해 1점, '참'에서 0점, '거짓' 또는 '모르겠다'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시민성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De Gagne et al[14]의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은 .58, 본 연구에서는 .68이었다.

2.3.2.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은 Lutzen et al[11]이 개발하고 Han et al[16]이 번안한 후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국내 간호사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전문적 책임, 환자중심 간호, 갈등, 도덕적 의미, 선행영역으로 5개 하위요인,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덕적 민감성 척도는 1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에서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하여, Lutzen et al[11]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8이었고, Han et al[16]연구에서는 .7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2.3.3. 사이버불링 경향성

사이버불링 경향성은 Yoon, Kim, Park[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8개 하위요인, 총 29문항으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위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심리 정당화, 윤리태도가 포함된다. 사이버불링 경향성 척도는 0점, '전혀 없음'에서 1점, '한 두 번', 2점, '일주일에 여러 번', 3점, '한 달에 여러 번'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여, Yoon, Kim, Park[5]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도 3개의 간호학과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링크를 모바일로 전달받고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동의를 한 학생들에게 답변결과를 받았다. 모바일 링크를 전달하기 전 설문 도중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완료된 설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개별코드로 저장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하였고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 분석은 빈도, 백분율을 시행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과 사이버불링 경향성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정도

연구대상자는 3학년 52명(30.2%), 4학년 120명(69.9%)이었으며 여학생이 131명(76.2%), 남학생 41명(23.8%)이었다. 학교생활에 만족하거나 보통이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2명(47.7%)으로 동일하였고. 전공만족도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9명(57.0%), 만족하는 경우가 62명(36.0%)로 나타났다. 오프라인불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9명(11.0%), 경험이 없는 경우가 153명(89.0%)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불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명(12.2%), 경험이 없는 경우 151명(87.8%)으로 나타났다. 현재 SNS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54명(89.5%)으로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18명(10.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이

47명(27.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하는 SNS 우선순위로는 유튜브 69명(40.1%), 인스타그램 52명(30.2%), 틱톡 39명(22.7%), 기타(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 12명(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시민성 점수는 5점 만점에 4.26±0.72점, 도덕적 민감성 점수는 7점 만점에 4.76±0.78점, 사이버불링 경향성 점수는 총점 87점 중 10.93±15.37점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cybercivility, moral sensitivity, cyberbullying tendencie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 Range	N(%) & Mean±SD
Gender	Male	41(23.8)
	Female	131(76.2)
Age (year)	20~21	7(4.1)
	22~23	108(62.8)
	≥24	57(33.1)
Grade	3rd	52(30.2)
	4rd	120(69.8)
School-life Satisfaction	Satisfied	8(4.7)
	Moderate	82(47.7)
	Dissatisfied	82(47.7)
Economic status	High	15(8.7)
	Middle	129(75.0)
	Low	28(16.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7.0)
	Moderate	62(36.0)
	Dissatisfied	98(57.0)
Off-line bullying experience	Yes	19(11.0)
	No	153(89.0)
Cyberbullying experience	Yes	21(12.2)
	No	151(87.8)
Current use of SNS	Yes	154(89.5)
	No	18(10.5)
SNS using time	<30 minutes	45(26.2)
	1 hours	47(27.3)
	2 hours	36(20.9)
	3 hours	33(19.2)
	≥4 hours	11(6.4)
Type of SNS	Instagram	52(30.2)
	Tiktok	39(22.7)
	Youtube	69(40.1)
	Etc.(kakao story, facebook, twitter)	12(7.0)
Cybercivility	1-5	4.26±0.72
Moral sensitivity	1-7	4.76±0.78
Cyberbullying tendencies	0-87	10.93±15.37

Table 2. Scores of cybercivility knowledge (n=172)

	Items	Correct answers n(%)	Ranking
1	An organization ensures that all information it collects about users will be kept confidential.	39 (22.7)	15
2	Cyberbullying is a form of incivility that occurs in cyberspace where online communication happens.	135 (78.5)	3
3	Cyberincivility is a concern among general college populations,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students'learning outcomes.	98 (57.0)	10
4	Cyberincivility occurs in social media channels,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and email.	129 (75.0)	6
5	Ethical standards guiding appropriate use of social media and online networking forums in education are already well established.	85 (49.4)	11
6	People say and do things online that they would not say or do in person.	134 (77.9)	4
7	Posting unprofessional content online can reflect unfavorably on health profession students, faculty, and institutions.	136 (79.1)	2
8	People tend to be ruder online than they are in everyday life.	140 (81.4)	1
9	Unlike traditional bullying, cyberbullying does not require repeated behavior	127 (73.8)	7
10	Cyberincivility is linked to higher stress levels, lower morale, and incidences of physical harm.	133 (77.3)	5
11	Using social media inappropriately cannot lead to civil or criminal penalties.	111 (64.5)	9
12	Cyberincivility does not occur in the workplace.	126 (73.3)	8
13	Humor, anger, and other emotional components of online messages are the same as face-to-face messages.	68 (39.5)	14
14	Breaches of confidentiality on social media may lead to mandatory reporting to licensing and credentialing bodies.	81 (47.1)	12
15	Despite privacy settings on social media, nothing is private after it is posted on the internet.	75 (43.6)	13

3.2. 사이버시민성 지식 문항별 정답률

본 연구대상자의 사이버시민성 지식은 15점 만점에 평균평점 9.40±2.90점으로 문항별 정답률은 '사람들은 일상생활보다 온라인상에서 더 무례해지는 경향이 있다' 문항이 140명(81.4%), '비전문적인 내용을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것은 학생, 교수, 학교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항이 136명(79.1%),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상의 대화공간에서 일어나는 비시민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문항이 135명(78.5%)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후에는 더 이상 사적인 정보가 아니다' 문항이 75명(43.6%), '온라인상에서 하는 유머, 분노 및 기타 감정 표현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하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문항이 68명(39.5%), '단체나 기관은 그들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공개를 보장한다' 문항이 39명(22.7%)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차이를 보면 성별(t=2.18, p=.006), 전공만족도(F=3.24, p=.042), 오프라인불링 경험(t=3.90, p<.001), 사이버불링 경험(t=3.57, p<.001), 현재 SNS 사용유무(t=-2.04, p=.04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과 사이버불링 경향성과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 사이버불링 경향성과의 상관관계는 사이버시민성(r=-.681, p<.001), 도덕적 민감성(r=-.186, p=.015)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4로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규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은 0.53-0.81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1.87로 기준인 10.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사이버시민성 (β=-0.57, p<.001), 오프라인불링 경험(β=0.16, p=.004), 성별(β=0.11, p=.00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4%였다(F=4.12, P=.044)(Table. 5).

3.5.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 사이버블링 경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이버블링 경향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블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사이버불링은 휴대 전화, 웹사이트, 이메일, 채팅방, 문자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17].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이버블링 경향성의 하위영역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위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심리 정당화, 윤리태도를 포함한다[5].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가해행동, 지지행동, 방관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사이버블링 경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이버블링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SNS 사용시간은 1시간, 30분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하는 SNS 우선순위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순이었다. 현실세계에서 맺기 어려운 타인과의 관계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는데[18], Na & Jang[1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SNS 일 평균시간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사용시간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고, SNS 우선순위로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연구 시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버시민성의 정도는 평균평점 4.2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전무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58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De Gagne et al[20]의 연구에서 보건의료 전공대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환자 정보 유출, 무례한 언어 사용, 익명성을 악용한 환자 혹은 동료에 대한 비난 등을 경험하였음을

Table 3. Differences of cyberbullying tendenc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F(*p*)
Gender	Male	1.53±0.65	2.18 (.030)
	Female	1.32±0.47	
Age (year)	20~21	1.52±0.59	0.30 (.741)
	22~23	1.36±0.49	
	≥24	1.38±0.58	
Grade	3rd	1.31±0.46	−0.94 (.345)
	4rd	1.40±0.55	
School-life Satisfaction	Satisfied	1.42±0.72	1.55 (.214)
	Moderate	1.30±0.44	
	Dissatisfied	1.44±0.58	
Economic status	High	1.51±0.60	2.36 (.097)
	Middle	1.32±0.50	
	Low	1.53±0.5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68±0.77	3.24 (.042)
	Moderate	1.28±0.45	
	Dissatisfied	1.40±0.52	
Off-line bullying experience	Yes	1.80±0.70	3.90 (<.001)
	No	1.32±0.48	
Cyberbullying experience	Yes	1.75±0.68	3.57 (<.001)
	No	1.32±0.48	
Current use of SNS	Yes	1.34±0.48	−2.04 (.042)
	No	1.61±0.79	
SNS using time	<30 minutes	1.43±0.58	1.51 (.199)
	1 hours	1.30±0.47	
	2 hours	1.48±0.55	
	3 hours	1.38±0.55	
	≥4 hours	1.09±0.11	
Type of SNS	Instagram	1.34±0.51	2.20 (.090)
	Tiktok	1.38±0.56	
	Youtube	1.33±0.48	
	Etc.(kakao story, facebook, twitter)	1.74±0.63	

Table 4. Correlations among cybercivility, moral sensitivity, cyberbullying tendencies (n=172)

Variable	Cybercivility	Moral sensitivity	Cyberbullying tendencies
	r(*p*)	r(*p*)	r(*p*)
Cybercivility	1		
Moral sensitivity	.255(.001)	1	
Cyberbullying tendencies	−.681(<.001)	−.186(.015)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yberbullying tendencies (n=17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41	0.17		19.06	<.001
Cybercivility	−0.42	0.04	−0.57	−9.82	<.001
Off-line bullying experience(dummy no)	0.25	0.08	0.16	2.94	.004
Gender(dummy female)	0.13	0.06	0.11	2.03	.044
Durbin-Watson =1.94, F=4.12, *p*=.044, Adjusted R^2= .514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태도와 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전략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시민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 시민성의 함양이 더욱 요구된다.

보건의료현장에서 사이버시민성이 높을수록 전문직간 핵심역량 인식정도와 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사이버시민성은 도덕적 덕목을 바탕으로 하며, 온라인상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평균평점 4.76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와 동일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 & Lim[21]의 연구에서 4.69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 Lee[22]의 연구에 4.99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핵심요소로 도덕적 민감성이 작용되어 윤리적 딜레마와 갈등에 노출된 경험이 많아 간호대학생보다 도덕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며 동료 간 협업관계에서 사이버블링은 도덕적 가치에 위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블링 경향성의 정도는 평균 10.93±15.3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블링 경향성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Seol[7]의 연구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8.66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정도가 일반대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직접 공격하는 악성 댓글이나 채팅, 게시글, 영상 등을 비난인 줄 모르고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이 사이버블링 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규제 및 사이버블링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불링 경

향성의 차이를 보면 성별, 전공만족도, 오프라인 불링 경험, 사이버불링 경험, 현재 SNS 사용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성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23]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 내 대면불링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13], 오프라인불링 경험도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사이버시민성, 오프라인불링 경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이버시민성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시민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요구되는 자질로 보호와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환자의 수술 및 간호 관련 사진이 SNS에 유포되거나, 사이버시민성이 결여된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교육에서 사이버시민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실정이다[8]. 또한 간호사의 일반적인 대면블링과 사이버블링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주요 요인분석 및 영향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중재프로그램이 중요시되며 예비간호사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제공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4].

사이버블링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행동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인식 활동, 적절한 규제와 제재, 사회적인 관계의 존중과 이해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사이버블링 경향성에 대해 위험성과 올바른 온라인 행동에 대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주요 인력으로 의료현장에서 동료 간호사, 타 직종의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와의 다양한 관계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간호사에게 직면하는 면대면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단계로 간호조직내에서 사이버블링 경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학부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흐름과 간호사 간의 태움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직장 내 대면불링 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에 대해 간호학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간호대학생들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 사이버블링 경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은 사이버시민성,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이버시민성, 오프라인 불링 경험과 성별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1.4%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 소도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이버시민성, 오프라인 불링 경험과 성별이었으므로, 사이버불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시작단계로 다양한 변인을 투입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H. J. Kim, "A study on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violence",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59, pp. 43-68, (2021). https://doi.α g/10.17924/solc.2021.59.43
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2). Cyberbullying survey [Internet],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2 [cite 2024 January 26], Available from: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8302&bcIdx=25350&parentSeq=25350.
3. S. H. Oh, I. N. Kwon, "An exploration of youth education's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bullying sniping mention - focused on experiences of out-of-school female youth -",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7, No.2 pp. 1-24, (2020). https://doi.org/10.34244/jfoys.2020.17.2.1
4. R. M. Kowalski, G. W. Giumetti, A. N. Schroeder, M. R. Lattanner,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Vol.140, No.4 pp. 1073, (2014). https://doi.α g/10.1037/a0035618
5. M.. S. Yoon, M. J. Kim, J. H. Park, "Developing an evaluation tool to measure the tendency of cyber bullying",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18, No.2 pp. 59-70, (2015). https://doi.α g/10.32431/kace.2015.18.2.006
6. T. H. Eom, "The effects of cyber-bullying victim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cyberbullying tendency: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victim sensitivity", *Hanshin University Graduate Master's Thesis*, (2022).
7. P. R. Seol, S.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yberbullying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1 pp. 576-585, (2021). https://doi.α g/ 10.5392/JKCA.2021.21.11.576
8. M. J. Hong, M. K. Jeon, S. H. Kwon, G. H. Choi, "The relationship among cybercivility, perception of interprofessional core competencies, professional identity of undergraduate healthca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 pp. 877-896, (2021). https://doi.α g/10.22251/jlcci.2021.21.2.877
9. J. C. De Gagne, K. Hall, J. L. Conklin, S. S. Yamane, N. W. Roth, J. Chang, & S. S. Kim, "Uncovering cyberincivility am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Twitter: A data mining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89, pp. 24-31, (2019).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8.09.009
10. M. J. Hong, J. C. De Gagne, H. W. Shin, S. H. Kwon, G. H. Choi, "The Korean version of the academic cyberincivility assessment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in South Korea: Validity and reliability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22, No.5 pp. e15668, (2020). https://doi.α g/10.2196/15668
11. Lützén, Kim, G. Nordström, Evertzon, Mats,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9, No.3 pp. 131-138, (1995). https://doi.α g/ 10.1111/j.1471-6712.1995.tb00403.x
12. M. Aimee, "Nurse ethic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review", *Nursing ethics*, Vol.25, No.3 pp. 278-303, (2018). https://doi.org/10.1177/0969733016646155
13. K. S. Cho, "Effects of workplace face to face bullying, cyber bullying and self-esteem on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5, No.3 pp. 218-229, (2018). https://doi.org/10.5953/JMJH.2018.25.3.218

14. Y. Choi, H. S.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displaced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s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in early adolesc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6, No.3 pp. 321-341, (2018). https://doi.αg/10.21479/kaft.2018.26.3.321
15. J. C. De Gagne, J. L. Conklin, S. S. Yamane, H. S. Kang, M. S. Hyun, "Educating future health care professionals about cybercivility: needs assessment study", *Nurse Educator*, Vol.43, No.5 pp. 256-261, (2018). https://doi.org/10.1097/nne.0000000000000487
16. S. S. Han, J. H. Kim, Y. S. Kim, S. H.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Journal of Nursing Ethics,* Vol.17, No.1 pp. 99-105, (2010). https://doi.org/10.1177/0969733009349993
17. S. Hinduja, J. W. Patchin, "Social influences on cyberbullying behavior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2, No.1 pp. 711-722, (2013). https://doi.org/10.1007/s10964-012-9902-4
18. J. H. Kim, H. S. Kim, G. H. Kim, M. J. Kim, Y. S. Kim, J. W. Kim, K. M. Nam, "The factors of self-esteem, anger expression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high school strudent",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1 pp. 157-167, (2021).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1.157
19. E. S. Na, H. J. Jang, "Influence of social network service(SNS) addiction tend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4 pp. 1070-1080, (2021).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4.1070
20. J. C. De Gagne, M. Choi, L. Ledbetter, H. S. Kang, C. M. Clark, "An integrative review of cybercivility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Nurse educator,* Vol.41, No.5 pp. 239-245, (2016). https://doi.org/10.1097/nne.0000000000000264
21. H. J. Hwang, M. R. Lim,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oral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tandard precaution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20, No.1 pp. 97-105, (2022). https://doi.org/10.22678/jic.2022.20.1.097
22. Y. J. Lee, J. E. Lee, "The influence of hospital nurses'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their biomedical ethics awarenes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9, No.1 pp. 51-59, (2023).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1.51
23. S. Y. Park, M. W. Yun,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of cyber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Vol.15, No.3 pp. 3-30, (2016).
24. Bio innovation connect service. (2019). Cognition based strategic approach for workplace cyberbullying management in nurses [Internet], Daejeon: Bio innovation connect service 2019 [cite 2024 January 26], Available from: https://www.bics.re.kr/ governRnd/subject/read/subject/34422